

[보도자료] 쿠팡, 고령군 농가 500곳 손잡고 딸기 수박 등 신규 매입 나선다

2025. 4. 16.



(왼쪽부터) 정희용 의원, 이남철 고령군수,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 쿠팡-고령군,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위한 MOU 체결
- 고령군 친환경 딸기, 우곡 그린수박, 멜론 등 쿠팡 로켓프레시 입점 확대 기대
- 쿠팡, 전국 지자체와 협력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

2025. 04. 16. 서울 - 쿠팡이 경상북도 고령군과 손잡고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신규 매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쿠팡은 고령군의 500여 개 농가와 협력하여 딸기, 수박, 멜론 등 대표 농산물을 신규 매입하고, 로켓프레시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오늘(16일) 쿠팡 서울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 정희용 국회의원, 이남철 고령군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령군의 우수 농·특산물 발굴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군은 쿠팡과 협력하여 딸기, 수박, 멜론 등 대표 농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특산품을 발굴하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로켓프레시 입점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이 산지 직송된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딸기, 우곡 그린수박, 멜론 등 농가에서 창출하는 소득은 고령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다. 고령 딸기는 일교차가 큰 지역적 특성 덕분에 당도가 뛰어나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돼 안전한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우곡 그린수박은 과육이 아삭하고 당도가 높아 여름철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으며, 고령 멜론은 향이 진하고 식감이 뛰어나 프리미엄 과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고령군은 최근 인구 감소와 농가 수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고령군의 총인구는 약 3만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가 수 역시 2010년대 초반 약 3천여 가구에서 2023년에는 약 2천여 가구까지 줄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쿠팡과 고령군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농가를 살리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쿠팡 고객들은 이러한 신선하고 품질 높은 농산물을 산지 직송으로 보다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쿠팡이 고령군과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신규 매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군의 우수한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쿠팡과의 협력을 통해 고령군 농가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쿠팡과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다양한 고령군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은 “쿠팡은 지역 농가와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고령군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농·특산물을 보다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객 만족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현재까지 △충남 금산군 △경남 남해군 △경북 성주군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8월, 해당 지역에서 쿠팡이 매입한 지역 과일 특산물 규모는 2021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쿠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국 각지의 우수한 농산물을 고객에게 선보이며, 지역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